

Crossroad

2019년 3월 일본 동경에서 유정훈 김신혜 선교사 기도편지

샬롬! 우리 주안에서 평안 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저희가 사는 동경은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3월 중순부터 일본 곳곳에서 벚꽃(사쿠라)이 활짝 피기 시작 합니다. 사쿠라는 이제 핀다 싶으면 금새 꽃이 만개가 되어 오래 가도 10일 정도 밖에 안 가는 벚꽃이지만 그 덧없음이 또한 아름다움을 더욱 깊게 해 주는 듯 합니다. 보름도 못 가고 땅에 떨어지는 벚꽃도 주님이 귀히 여겨 주시니 우리는 얼마나 더욱 주님의 눈에 귀할 까요.

2018년 크리스마스

작년 12월 크리스마스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아이들이 성극을 준비 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이 준비한 성극을 보며, 주님이 우리를 바라 보실 때의 마음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아니신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후에는 매년 기대하는 빙고 선물교환 게임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일년 중 일본인들이 가장 교회에 오기 쉬운 시기 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지만 평상시 교회나 예배를 멀리 하던 사람들도 이때 만큼은 꺼리낌없이 교회에 찾아와줍니다. 저희들은 이때라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일본인들에게 있어 크리스마스가 1년중 가장 큰 축제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원단금식기도회

2018년12월30일부터 2019년1월2일에는 원단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일년을 금식으로 마무리 하고 새해를 금식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 이었습니다. 저녁 성회는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낮시간은 주로 성경통독/개인묵상기도/



그룹별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3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금식기도회에 참여하며 금식으로 한해를 맞이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2019년 한해 주님의 한 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올해 저희 동경 오야마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1)

가족소식및 기도제목

늘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년에는 영적으로 큰 깨달음과 성장을 주신 한해 였습니다. 2019년에는 받은 은혜를 더욱 복음 전도에 쓰라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케부쿠로(터미널 역)에 있는 버스 정류장은 저희가 주로 전도하는 장소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일본인들에게 3-5분정도의 쇼트메시지를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피할 수 없어 이 곳은 복음 전하기 아주 좋은곳



입니다. 매년 복음을 전하며 아직은 열악한 일본의 영적 상황이기에 누군가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땅을 여실 그 때에 주님을 만나는 영혼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1. 새로운 예배장소를 시모이타바시역 주변으로 허락하시고 믿음과 기도를 준비할 때 물질과 함께 성전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도록 기도합니다.
2.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성전을 준비하며 만물의 주인되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는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3. 봄학기를 통해 동경대 와세다 립쿄대를 중심으로 일본캠퍼스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연결되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가운데 교회에 잘 정착되고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4. 새학기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에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과 잘 사귀며 복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희부부가 주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더욱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복음전도사역에 더욱 맹진할 수 있는 체력과 영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19년3월

유정훈 김신혜 선교사 올림